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신뢰 회복 나선다

신바람 공단만들기 종합계획 발표 혁신위 구성, 조직내 문제점 개선 상별규정 손질, 비리행위 발본색원

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각종 변화를 시도해 지역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10일 광산구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임영일 이사장이 새롭게 취임하면서 그동안 노출된 공단 내 각종 부조리 등을 개선하는 방안의 혁신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임 이사장은 조직 내 뿌리 깊은 병폐 잘라내고 직원들 사이에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담은 '신바람 공단 만들기 종합계획'안을 마련하고, 실추된 공기업의 명예 회복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는 그동안 공단 내 노동조합이 5개씩이나 설립돼

직원간 불협화음이 심각하고, 생활폐기물 수거 불편 등 각종 민원발생은 물론 다양한 유형의 직원 비위 행위까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은 2024년 세해를 맞아 그동안 실추된 공기업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6가지 실천안을 담은 '신바람 공단 만들기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가장 먼저 공단 내 고질적인 병폐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외부인을 참여시킨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부에 '혁신TF팀'을 운영해 공단 내부에 있는 모든 부조리를 없애기로 했다. 이어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이사장 고충 상담제'와 '포상 확대' 등 각종 직원 우대 정책도 병행한다.

특히 'BEST 5 키우고, WORST 5 버리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 출근하고 싶고, 열심히 근무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어 가겠다는 계획이다.

BEST 5는 고객절전, 직원간 칭찬, 솔선참여, 책임의식 고취, 규정 준수이며, WORST 5는 직

무 태만, 직원간 반목, 직장내 괴롭힘, 업무부조리, 예산낭비 등이다.

공단은 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성과 중심 인사관리제를 시행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해선 인사우대와 포상을 확대하는 한편 각종 교육을 통해 조직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비위 행위자와 차상급자와의 연대 책임제를 시행하고, 승진 제한 기간 중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 강화하기로 했으며,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의계약 한도액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조정했다.

이 밖에도 올해 최대 목표를 생활폐기물 '일일수거제' 정착으로 정하고 조직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방침이다.

임영일 이사장은 "그동안 공단 내부의 잘못된 관행과 부조리를 과감히 타파하고 분위기를 일신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국무총리 표창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이 최근 행정안전부 주최 '2023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한 뒤 직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산구 제공>

광주 광산구는 "행정안전부 주최 '2023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유공 정부포상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자전거 이용 시설 확충, 이용 활성화 및 안전 문화 조성, 기관장(단체장) 관심도, 우수사례 등 4개 기준으로 이뤄졌다.

광산구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증가하는 자전거 사고로 인한 시민의 재정적·심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안심자전거보험'을 확대해 왔다.

지난해에는 안심자전거보험 기존 보장항목 중 진단 위로금과 상해 입원위로금을 2배로 확대하고, PM(개인형 이동장치)도 보험 대상에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지하철역 및 동 행정복지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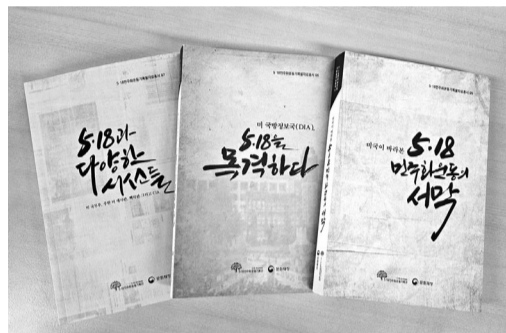
터, 하천변 중심으로 자전거 바퀴 공기주입기를 설치하고, 자전거 휴게소 조성을 추진하는 등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성도 높였다.

이 밖에도 하천변 단절된 자전거도로 개선, 순환형 자전거도로로 구축, 도심권 자전거 개설 및 노후 자전거도로 정비, 무단 방치 자전거 수거 서비스 운영 등 자전거 이용 기반을 강화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녹색 교통 수단인 자전거를 이용하려는 시민이 늘어나고, 이를 뒷받침하는 기반 시설 확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그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았다"면서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편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시를 목표로 앞으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5·18기록관, 총서 3권 발간 美정부 민감 정보 다수 포함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5·18기록물 자료총서 3권(사건)을 추가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자료총서는 5권부터 7권까지 3권으로, 2017년 미국의 탐사보도 전문가인 팀 셔록(Tim Shorrock)이 5·18기록관에 기증한 자료 중 주요 기록물을 선별해 엮은 것이다.

총서에는 1979년 10월 26일 이후 미국 국무부와 주한 미국대사관이 주고 받은 민감한 정보(체로키 파일)를 포함한 5·18 관련 미국 정부 문서가 다수 포함돼 있다.

자료총서 5권 '미국이 바라본 5·18민주화운동'은 1979년 12월 12일 군사쿠데타 발생한 날로부터 1980년 5월 18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에 따른 대통령 담화문 발표까지의 자료가 담겼다.

자료총서 6권 '미국방정보국(DIA), 5·18을 목격하다'는 5·18민주화운동이 진행되는 10일 간의 상황을 집중한 미국방정보국(DIA) 문서들로 구성됐다.

마지막 7권 '5·18과 다양한 시선들'은 미국 국무부, 주한 미국대사관, 백악관, CIA(중앙정보국) 등에서 작성된 문서들로 구성돼 있다.

자료총서는 비매품으로 기록관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홍보관)간행물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광산구 송정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이 최근 공유공간 냉장고에 '이에이치유통'에서 후원한 물품을 채우고 있다. <광산구 제공>

송정1동 '공유공간' 든든한 조력자 얻었다

이에이치유통, 매일 즉석식품 등 정기 후원키로

지역사회가 모은 온정으로 운영 중인 광주 광산구 송정1동 '공유공간'은 10일 '이에이치유통(대표 장현태)에서 매일 50만 원 상당의 즉석식품을 후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2년 6월 문을 연 송정1동 '공유공간'은 송정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기영철)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한 마을복지계획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송정1동 행정복지센터 입구에 설치된 진열장과 냉장고에 주민 누구나 물품과 식품 등을 채워 놓으면 필요한 사람이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나눔과 공유로 풍요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지만, 주민의 자발적 후

원과 기부로만 운영하다 보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게 현실이다. 이번 이에이치유통의 정기 후원 약속이 그 어떤 나눔보다 크게 다가오는 이유다.

최근 라면, 컵밥, 참치캔 등을 지원한 이에이치유통은 앞으로도 송정1동 공유공간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일 후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공유공간 운영을 이끌고 있는 기영철 위원장은 "올해에는 더 많은 기업의 후원을 유도해 공유공간을 통한 나눔과 공유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안심식당 운영' 기초지자체 전국 1위

광주 광산구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3년 안심식당 운영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기초 자치단체 전국 1위 기관으로 선정돼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평가는 안심식당을 지정·운영하는 전국 17개 시·도와 22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광산구는 감염병에 취약한 식사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조건에 부합하는 음식점을 지정하는 '광산 안심식당'을 운영한 점 등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산 안심식당' 영업주는 다섯 가지 감염병 예방 활동인 매일 소독, 마스크 착용, 개인접시 제공, 위생적 수저관리, 손소독제 비치

등을 실천하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광산구가 지정된 '광산 안심식당'은 374개소에 이른다. 광산구에선 안심식당제 도입 이후 안전한 식사 문화 정착에 동참하는 음식점 업주들이 늘어나고, 민관이 합심해 안심할 수 있는 외식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등 의미 있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식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신 광산 안심식당 영업주 덕분에"이라며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장덕도서관 '겨울방학에 떠나는 경제여행' 운영

광주 광산구 장덕도서관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초등학교 4~6학년생을 대상으로 겨울 독서교실 '겨울방학에 떠나는 경제여행'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경제학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독서 교실은 초등학교생들이 주제 도서를 읽고 독후 활동을 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또 그림책을 읽으며 경제를 이해하고, 현명한 소비 습관에 대해 함께 토론하며 나만의 용돈 기입장을 만드는 등 다양한 활동도

이어갈 예정이다. 장덕도서관 관계자는 "다양한 책을 읽고 독후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유익한 겨울방학을 보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독서교실 참여 신청은 광산평생학습포털(edu.gwangsan.go.kr)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광산구통합도서관 누리집(lib.gwangsan.go.kr)과 평생학습포털에서 확인하면 된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